

“지성의 상아탑 바로 세워야 한다”

대학사회 문제 진단한 책들 속속 출간

‘입시부정’ ‘대학교수의 조교 성희롱’ ‘교수 임용 비리’ ‘재단 비리’ 등 대학과 관련되어 터져나오는 갖은 양상의 사건들은 우리 대학이 처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학에 직접 몸담고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 간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학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책들을 속속 출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최근 서점가에서 찾을 수 있는 대학문제 관련서들은 대학의 위기가 곧 사회의 위기이며 대학교수들의 문제야말로 현재 우리 대학이 처한 위기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대학 위기의 문제

《한국의 대학교수시장》(장정현 지음, 내일을 여는 책)은 교수와 대학의 질 저하와 대학의 경쟁력 상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릇된 교수 임용 풍토에서 비롯됐다는 데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다. 현재 ‘교수 공정 임용을 위한 모임’의 간사로 활동중인 저자는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교수임용에 관한 이론적 기저를 확립하는 한편, 각 대학 출신자의 교수시장 점유율, 대학별 본교 출신 교수 현황 등을 살피고 있다. 이밖에도 각 대학의 교수, 시간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교수 임용에 관한 실태와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분석과 문제점 제시와 아울러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과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교수채용 모형(심사 기준안) 등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대학과 교수사회 이대로는 안된다》(조광섭 지음, 한샘)는 광운대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를 대비해 전 사회가 개혁의 몸부림을 앓고 있는 때에 개혁의 무풍지대에서 안전하고 있는 대학교수사회”의 문제를 통렬하게 비판한 책이다. 저자는 산업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학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수들이 누려온 수구적인 기득권이나 병들어 있는 관행에 대해 일대 수술이 선행돼야 한다고

교수와 대학의 질 저하와

경쟁력 상실 등

현재 우리 대학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이들 책이 제기한 대학사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고무적이다.

역설한다.

저자는 교수평가제나 강의평가제 등을 실시해서 공부하지 않는 교수는 대학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생산적인 연구를 통해 산학협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대학이 우리 사회 발전의 기초로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교수는 대학을 떠나라》(사쿠라이 쿠니모토 지음/조용경 옮김, 한송)는 다소 과격한 제목의 책은 미국의 NASA에서 오랫동안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귀국, 현재 일본 가나가와 대학 공과대학장을 맡고 있는 저자가 일본 대학교수들의 문제점을 아프게 꼬집은 것이다. 공부하지 않는 대학교수를 향해 “대학교수와 거지는 사흘만 하면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보다 더 편한 직업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걸할 필요조차 없으니 교수는 거지보다 더 편한 직업이다”는 자조적인 평을 한다. 박사학위나 교수채용을 둘러싼 금품수수, 대학 내 이권개입, 부정입학, 제자나 조교에 대한 성희롱, 교과서 제작을 둘러싼 출판사와의 뒷거래, 학내 파벌 조성 등 일본 대학 교수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가지 치부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인 이한우씨가 쓴 《우리의 학맥과 학풍》(문예출판사)은 대학 교수사회가 지닌 이러한 문제점이 노정된 결과물인 학문적 성과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 책이다. 제자들의 논문을 도용, 버젓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거나 국내에 발



대학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표되지 않은 외국 논문을 자기 것인양 교묘하게 표절하는 등 대학교수들의 학문적 비리와 치부가 날날이 공개되는가 하면, 각 학계의 주요 학문분야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현재 거두어 들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가능하게 해준다.

연구서 턱없이 부족

《대학 없애야 우리가 산다》(이항규 지음, 한겨레신문사)는 현행 대학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위의 책들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현재와 같은 대학교육제도는 대학에 가야만 성공한다는 경쟁논리, 배우면 나와 내 가족만 잘산다는 이기적이고 국수적인 가치관에 우리를 가두어두는 꼴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 대학이라는 통념화된 ‘시간과 공간의 틀’로부터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살펴본다면 대학의 족쇄로부터 전국민이 해방되는 혁명적인 교육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 머지않아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국민학교부터 인생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든 현재 전 세계 가장 우수한 대학에서 이뤄지는 최고의 강의를, 가장 현대적인 방식으로 익히고 이를 다시 실습과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일관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21세기 교육의 이상향이라고 제안한다.

이들 책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학사회의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들이 아니다. 90

년대 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한 학원자주화 운동이나 범사회적인 개혁바람에 따라 학사행정이 일정부분 공개화되면서 고질적인 병폐들이 최근 들어 부각됐을 따름이다.

최근 들어 대학문제를 파헤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밖에 경제정의실천연합회와 같은 시민단체나 지난해 창립된 교수 공정임용을 위한 모임 등을 통해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실천적 노력들이 가속화 한 것도 대학문제 연구를 부추긴 한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책들의 대부분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문제제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이런 책이 대학이나 교수 사회에 대한 불신만 조장시키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장정현씨는 “대학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비록 문제제기 수준의 책이라 할지라도 감춰져 있던 대학사회의 문제들을 날날이 공개하고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많이 출간돼야 한다”고 밝힌다. 대학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는 우리 대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말이다.

—박남정 기자